

탄핵 D-3 ‘200석’ 확보 전쟁



의원들이 쓴 ‘탄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5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를 보여주려고 촛불로 ‘탄핵’ 글자를 형상화한 집회를 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 5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대회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3野, 국회 앞 탄핵 촛불집회·공동 의원총회...비박 전방위 압박 새누리 자유투표·친박 일부 탄핵 가세...40표 이상 찬성 관측도

박대통령 표결 전 4차 담화 ‘4월 퇴진’ 입장 표명할 듯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야권의 탄핵 공조는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공고해지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 진영의 탄핵 저지선은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전원 참석, 자유투표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맹우 사무총장 등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일 예정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참여해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도 “자유투표”에 동의했는데, 이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동의했다”고 답했으며 ‘4월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

선’의 당론에 대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새누리당은 당론 변경과 탄핵안 표결 참석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박 진영에서 ‘탄핵 보이콧’ 당론을 통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토록 하는 방안은 불 건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논의되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사실상 무산됐다. 당내 중진의원 6인(원유철·김재경·나경원·정우택·주호영·홍문

중)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주말 촛불 집회를 계기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지난 4일 탄핵 표결 참여를 확정한 이후부터 당내 분위기가 ‘탄핵 불가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대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비박과 중도 성향 의원들은 물론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까지 가세, 최소 40표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야권은 탄핵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야권은 국회 앞에서 탄핵 촛불집회를 갖는 것은 물론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비박 및 중도 진영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에 참여

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 대통령 퇴진-6월 조기대선’ 방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허원제 청와대 정부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박 대통령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9일 이전 제4차 담화나 기자회견 등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탄핵 정국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INA,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준비 호평

내년 국비 49억 확보에 안도

국제수영연맹(FINA)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5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에 따르면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등 대회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캐나다 원저지에서 개최된 FINA 부로(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회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캐나다 원저서에서는 현재 FINA 부로 회의와 전시회, 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다.
각국 수영연맹이 선출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INA 부로 이사회는 FINA 경기규정 해석·집행, 차기 개최도시 결정, 개최도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그동안의 광주대회 준비 과정과 국비 예산 증액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직위는 대회 시설 분야 설

계, 대회 관리시스템, 경기운영시스템, 도핑, 의료, 경기운영요원 양성, 인종 등의 세부 분야에 대해 FINA 전문가와 협의했다.
홀리오 마를리오네 FINA 회장 등 집행위원들은 “대회 준비가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고, 진행 상황 보고서도 잘 작성됐다”며 “FINA도 광주수영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FINA 위원들은 집행위 질의·응답에서 조 사무총장으로부터 “내년 광주수

영대회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30억원을 증액해 총 49억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직위는 세계 수영관련 기업·기구·차기 개최국 등 40여개 홍보부스가 전시된 ‘FINA 컨벤션’에 광주수영대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한복을 입은 안내원과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가미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수영대회를 본격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기 운영·홍보·마케팅·수송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약사암 주변
편백나무 30그루 ‘씩둑’ ▶6면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폭스바겐 5000 프로젝트 ▶18면

KIA 햅터·최형우·이범호...
황금장갑 누가 잡을까 ▶20면



촛불

박근혜 퇴진까지 매일 밤 타오른다

5일 밤 박근혜 대통령에 분노한 촛불 민심이 청와대 200m 앞까지 ‘덕밀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매일 밤 청와대까지 행진해 박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광주·전남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오는 7일 각 지역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5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범원이 평일 밤 10시 이전까지 청와대 200m 앞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범원은 장기간에 걸친 행진에 관한 특수성과 주말에 비해 적은 참여인원을 고려해 행진 시간을 10시로 제한했다.
6일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퇴진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7일에는 새누리당을 정조준하는 집회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다. 민주노총과 각 지역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간과 참여인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남정수 퇴진운동 대변인은 “9일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 전면 해체까지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효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